

김하은, 장애인체전 4년 연속 3관왕...금메달 13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3개 획득

# 광주 장애인 육상, 역대 최고 성적 '쾌거'



광주 육상 김하은이 24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여자 200m T12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김하은은 이 종목 우승으로 장애인체전 4회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진 오른쪽은 이날 남자 200m T12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승훈(가이드 이룡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육상 김하은이 24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여자 200m T12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김하은은 이 종목 우승으로 장애인체전 4회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진 오른쪽은 이날 남자 200m T12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승훈(가이드 이룡재).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린 광주FC 엄지성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엄지성·이희군·엄원상 '골 폭풍'...수원FC 잡고 연패 탈출

## '분위기 반전'... "희망을 봤다"

프로축구 광주FC가 모처럼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연패를 끊었다. 광주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24라운드 순연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다. 광주도 이겼지만 경쟁팀 성남FC와 FC서울도 다 승리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파이널B 강등권 싸움을 앞둔 광주로서는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향후 반전을 기대했다. 광주는 이날 '광탄소년단' 엄지성, 이희군, 엄원상의 골을 앞세워 수원FC를 완파했다. 엄지성과 엄원상의 빠른 발과 김종우



지난 22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제25회 광주야구인 동우회경기 겸 2021년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총장BC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총장BC, 추계중학교야구 우승

3경기 연속 월드컵게임 이윤우 대회 MVP 수상

클럽팀으로 전환한 총장베이스볼클럽(총장BC)이 제25회 광주야구인 동우회경기 겸 2021년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총장베이스볼클럽은 지난 20-22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막강화력을 앞세워 3경기 연속 월드컵게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첫 경기에서 진흥중을 상대로 18대3(5회 7점 월드컵게임) 대승을 거둔 총장

중은 다음 날 무등중을 15대3(5회 7점 월드컵게임)으로 제압하며 2승을 차지했다. 총장중은 동성중과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투·타를 압도하며 7대0(5회 7점 월드컵게임) 승리를 거둬 중학교 야구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총장BC 이윤우가 선정됐고, 총장BC 김민상은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9타수 8안타(0.888)를 기록한 총장BC 최사훈은 타격상을 수상했다. /박희중기자

## "KIA의 미래...꿈을 펼쳐라"

KIA타이거즈, 30일 2022년 신인선수입단·환영식



KIA타이거즈 2022년 신인 선수 입단식이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입단식에는 이희원 대표이사과 조계현 단장을 비롯한 구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2022년 신인 선수들의 입단을 축하할 예정이다. 입단식은 신인 11명에 대한 소개와 유니폼 착용식, 꽃다발 및 기념품 전달 등 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입단식을 마친 신인 선수들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이동해

윌리엄스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상견례를 하고,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도영, 최지민, 윤도현 등 신인 선수 11명은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내년 시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신인 선수들은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린 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구·시포 행사도 갖는다. 2022년 신인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은 부모님의 공을 받는 시포자로 나서 프로 선수로서의 출발을 알린다. /박희중기자

## 광주, 서수연 돋보인 탁구 14개 메달 획득 '순항' 전남, 박영순 1500m 한국新·펜싱 조은혜 3관왕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 육상이 다관왕을 무더기로 배출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대회 육상에서만 금메달 13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3개를 따내며 종합점수 1만6천121점을 획득했다. 여자 100m T12와 여자 400m T12에서 2개의 금메달을 수확한 김하은(시각, 선수부)은 200m T12에서도 21초44의 기록으로 2017년 제37회 대회부터 이번 제41회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승훈(가이드 이룡재)도 남자 200m T11에서 27초90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승훈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여자 200m T20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수연도 대회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 육상은 25일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로 도교 페럴림픽 스타 서수연의 활약이 돋보인 탁구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현재 14개의 메달을 획득한 탁구는 단체전 4개 종목에서 모두 준결승에 올라 역대 종목 최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펜싱에서는 조은혜가 여자 사브르 개인전(2등급)에서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에페·플로레·사브르 3관왕을 석권했다.

태권도의 홍민오는 남자 겨루기 -58kg(청각)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3년 연속 동메달에 머물렀던 홍민오는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여자 겨루기(청각) -49kg에서 -57kg로 체급을 올린 한다영은 지난 대회에 이어 다시 한 번 금메달을 차지하며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다. 볼링에서는 서영춘이 남자 개인전 DB(청각 선수부)에서 금메달을 보냈다. 4강전에서 대전을 꺾고 결승에 진출한 지적축구는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 충북과 우승을 다퉈다. 전남선수단도 육상에서 남보를 전했다. 여자 1500m 결승에 진출한 박영순(덕수학교)이 5분21초64로 종전 김지영(광주·5분34초43)의 기록을 12초79 앞당기며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남자 시각 T13 김보조(은광학교)는 멀리뛰기와 높이뛰기 금메달, 육상(필드) 여자 DB 이미옥(한전KPS)은 창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

하며 각각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남자 원반던지기 F12 하성환(은광학교)과 여자 멀리뛰기 DB 장지현(전남 장애인육상연맹)도 값진 금메달을 추가했다. 당구에서는 여자 BIW에서 정선정(대신기공)이 원구선에 이어 3구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둘째 임신으로 대회 개막 며칠을 앞두고 출전을 포기했던 정선정은 두 배의 기쁨을 맛봤다. 또 볼링 남자2인조에서는 신백호, 최형철(이상 포스코ICT)은 결승 함께 1천431점으로 전남 남자 2인조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선수 취업연계 프로젝트에 추천돼 선수생활을 이어온 신백호, 최형철은 "지난 8월 포스코ICT 취업에 성공해 안정적인 생활 여건으로 운동에만 전념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금메달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 기자

## 33년간 48명...200승 합작 '장하다, 태극낭자군'

24일 부산에서 끝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고진영이 우승하며 LPG A 투어 통산 한국 선수들의 200승째가 달성됐다. 한국 선수의 LPGA 투어 첫 우승은 1988년 3월 고(故) 구옥희 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협회장의 스탠더드 레지스터에서 나왔다. 당시 1988년 9월에 개막한 서울올림픽 준비에 국가적 관심이 쏠려있어 구옥희의 LPGA 투어 첫 우승 소식이 국내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88년 3월 28일자 신문들의 지면을 보면 구옥희의 우승 소식은 대부분 체육면 톱으로 실려 있다. 이후 박세리(44)가 10년 뒤인 1998년 US여자오픈 등 메이저에서 2승을 따내며 본격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미국 진출의 길을 열었고 1999년 김미현(44)이 스테이트 팜 클래식에서 한국 선수 통산 100승째를 달성했다. 한국 선수 50승은 2006년 김주미(37)가 SBS오픈에서 따냈고, 100승은 2012년 유소연(31)이 제이미파 톨리도 클래식에서 이정표를 세웠다. 1승에서 100승까지 24년이 걸렸는데 101승부터 200승까지는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200승에는 한국 선수 48명이 힘을 모았고, 그 가운데 29명이 2승 이상을 담당했다. 200승 가운데 메이저 우승은 19명이 합작한 34승이다. 한국 선수 가운데 최다승은 25승을 따낸 박세리, 그다음이 21승의 박인비(33)다. 이 두 명 외에 10승 이상을 달성한 선수는 김세영(28)이 12승, 신지애(33)와 고진영이 나란히 11승을 수확했다. 연대별 승수를 보면 1990년 이전에 1승, 1990년부터 1999년 사이에 12승이었다가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71승으로 경종 뛰었다. 또 2010년 이후로는 116승이 쏟아져 나왔다. /연환뉴스



24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고진영이 우승 후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LPGA 제공>

## '짜릿한 역전 우승' 고진영 LPGA 한국인 200승 달성

임희정과 연장 승부 BMW 챔피언십 우승...세계 1위 탈환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선수 통산 200승 쾌거를 이뤄냈다. 고진영은 24일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기록해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의 성적을 낸 고진영은 임희정(21)과 연장전을 벌인 끝에 한국 선수 LPGA 투어 통산 200승을 달성하는 영예를 누렸다. 12번 홀(파4) 버디로 1타 차 단독 1위에 오른 고진영은 이후 14, 15번 홀

연속 버디로 우승한 임희정에게 1타 차 다시 단독 선두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17번 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기록해 승부를 연장으로 넘겼고, 18번 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에서 173야드 두 번째 샷을 0.5m 정도 옆에 보내며 승기를 잡았다.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의 2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가 넬리 코다(미국)에게 1위를 내줬던 고진영은 약 4개월 만에 다시 세계 1위를 되찾았다. 또 고진영은 한국 선수 200승뿐 아니라 197승부터 200승까지 마지막 4승을 혼자 책임졌다. /연환뉴스